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모양이 우아하고 소리가 장중한 평양종



유서깊은 평양의 련평정과 대동문사이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평양종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그곳으로 향한 기차의 발걸음은 자연히 빨라졌다.

목적지에 다달으니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어려있는 평양종의 웅장한 자태가 안겨왔다.

《평양종의 유래는 꽤 오래입니다. 1714년 평양의 복성을 쌓고 북장대를 세우게 되면서 대동문 윗쪽다락에 이미 달려있던 종을 옮겨달았다는 자료가 전해옵니다.》

리일심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평양종을 눈여겨보느라니 절고리는 쌍룡틀임으로 하였는데 룡머리의 형상이 생동하게 보였다.

또한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중명 등이 섬세하게

조각되어있었다.

《질량이 13t 513kg이고 높이는 3.1m, 아구리직경은 1.6m인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손꼽히는 큰 종들중의 하나로서 모양이 우아하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 리일심연구사는 평양종의 래력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를 꺼내었다.

먼 옛날부터 평양성에서는 아침(파루-새벽 4시, 33분 침), 저녁(인경-10시, 28분 침)에 울리는 평양종의 종소리로 모든 성문들이 동시에 여닫혔고 성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변들이 이 종소리로 알려졌다.

때로는 나라의 경사나 외적의 침략을 알리는 신호수단으로도 리용되어왔던 평양종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주조기술을 보여

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었던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세월에는 농들에게 놀리워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주체34(1945)년 12월 31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 후 처음으로 맞는 새해를 인민들이 즐겁고 뜻깊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밤 12시에 종소리를 울리도록 하여주시었다. 하여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자랑해온 평양종소리가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장엄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다.

진정 민족의 재보도, 귀중한 유산도 위인의 손길아래서만 자기의 모습을 다시 찾고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진리를 되새겨보게 하는 사연깊은 평양종이다.

평양종의 하많은 사연을 되새기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철민

건축발전에 이바지해간다

평양건축대학에서 학생들이 건축재료부문의 믿음직한 인재로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이곳 학부 학생들은 질 좋은 건축재료들을 자체의 원료와 기술로 만들어내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는 실력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건축재료공학부의 녹색 건축재료학과 학생과 연구소조에서는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바깥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하게 하여 주는 상변환축열재에 대

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고온, 강추위가 나날이 나고있는데 맞게 건축물들에 이 재료를 리용하면 많은 전기와 연료를 절약하면서 녹색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곳 학부의 건축실습장에서는 학생과 연구소조원들이 지도교원과 함께 건축물들에 쓰이는 여러가지 칠감들을 더 질 좋고 색깔도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한 연구를 놓고 진지한 토의도 벌

리고있다.

그 어느 실험실들에 가나 모든 건축재료를 자체의 원료로 해결할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에 정열을 바쳐가는 소조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열기된 모습에서 나라의 건축재료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하나를 연구해도 자기의 것으로 세계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창조물을 내놓으려는 대학생들의 야심만만한 포부를 느낄 수 있다.

본사기자

한완보가 작사하고 리동준이 작곡한 《평년새가 날아든다》는 1960년에 창작된 민요이다.

함경도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던 민요 《새라령》의 음조에 기초하여 창작된 이 민요는 해마다 풍년을 이룩하여 더욱 살기 좋은 광복으로 전변되어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 동촌의 아름다운 현실을 반영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더욱더 행복한 락원으로 전변되어가는 사회주의 동촌에서 살며 일하는 농업근로자들의 크나큰 기쁨과 긍지, 끝없는 랑만을 소박하면서도 흥겨운 시어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 꽃피는 봄날과 벼삭에 대한 생동한 묘사는 흥겨우면서도 구수한 민족적정서를 풍만하게 하여주고있다.

선율은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민요5음조식에 기초하여 굿거리장단을 타고 댕고 흥겨우면서도 건드러진 정서로 일관되어있다.

선율에서 새의 울음소리를 형상한 재치있는 민요적구림새는 독특한 매력을 준다.

노래는 간결한 리듬구성과 섬세한 표현 등의 형상특징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민요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성공관은행나무는 개성시 방직동(개성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공관마당에 있는 두그루의 은행나무이다.

동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 30m, 밑동둘레 6m, 가슴높이둘레 5.25m, 약 2.8m의 높이에서 2개의 원줄기로 갈라졌다.

가지를 잘라 줄기에 수많은 잔가지들이 뻗어 직경 약 20m

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서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 31m, 밑동둘레 6.45m, 가슴높이둘레 5.25m, 밑동직경 2.6m, 가슴높이직경 1.7m이다. 나무는 약 4m의 높이에서 2개의 원줄기가 갈라졌다.

굵은 가지들과 잔가지들이 뻗어 직경 약 27m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이 나무는 조선반도에서

자라고있는 은행나무가운데서 오래 자란 큰 나무이고 유적건물(성공관)과 함께 력사적으로 보존되어오는 귀중한 자연재부로서 학술연구와 나무모양이 아름다워 자연공치를 돌구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천연기념물 제38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본사기자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녀 자 권 투 강 자 방 철 미

공화국의 체육인들이온테는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뛰어난 경기실력을 보여준 여자권투선수 방철미도 있다.

평양북도 정주시의 평범한 농장원가정에서 태어나 정주 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권투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전문체육단에서 권투선수로 있으면서 강도높은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후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순위에 입선한 그녀는 2017년 몽골에서 진행된 울란바타르컵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특히 그녀는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여자권투선수권대회 51kg급경기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여자권투강자로서의 뛰어난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선수권대회 준준결승경기에서 인디아선수를 가변계 물리친 그녀는 준결승경기에서 미국선수에게 련속적인 공격을 들어냈다. 형세를 역전시키려고 미국선수가 반공격으로 나왔지만 방철미선수의 드센 공격에 기가 꺾여 패하고말았다. 그녀는 까자호스만선수와 결승경기에

서도 5:0으로 이기고 세계선수권을 쟁취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 실력이 제일 높은 선수들의 대결자인 2019년 아시아 남녀권투선수권대회에서도 그녀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쥐고 좌우이동과 불의적인 치기를 결합한 공격을 들어대어 맞대드는 선수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기고 랑홍색공화국기발을 창공높이 휘날렸다.

인민체육인인 그녀는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새책소개 도서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6)

평양출판사에서 도서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6)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도서는 해방후 갈길 몰라 방황하던 인사들을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싸우는 열렬한 애국투사들로 손잡아 이끌어준 위대한 수령님의 바다같이 넓은 품에 대해 서술하고있다.

파란만장 이 나라의 근현

대사에 큰 자욕을 새긴 풍운의 사나이 김구, 해방후 남조선에서 뛰어난 정치가로 활약하던 리운형, 랑심적이고 강직한 법률가이며 대의를 위해 투신한 의로운 정치가 허헌, 한성 펜으로 나라의 독립과 통일애국사업에 이바지 해온 애국투사 최일천, 반일 애국인사 안창호의 녀동생 안신호씨다.

이들모두는 나라를 통일시켜줄 민족의 구심점, 명수를 그리었으며 그 품속에서 자기의 생을 빛내었다.

도서는 애국에 살고 애국에 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안겨야 할 위대하고 한없이 넓은 철세워인의 품이



사화

《쇠도리깨다!》 (5)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노솔이와 필도가 이것을 김만수대장에게 가지고 가보여주자 대장은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부친의 왜놈잡이도리깨질을 본보기삼아 아들은 병장기를 새로 만들어왔단 말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란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생겼잖나. 장한 아버지에 역시 장한 아들일세!》

대장은 이어서 우리 의병들은 모두다 도리깨질명수들이니 다루는 법을 따로 익힐 필요는 없고 다만 힘기우기가 기본이다. 한 보름동안 땀흘려 훈련하고 싸움마당에 나가보자고 힘있게 격려 해주었다.

...봉산의병대는 터풀에 둔을 친 왜군부리를 한밤중에 들이쳤다.

이 싸움에서는 도리깨를 든 노솔이와 필도가 앞에 서서 냐쳐나갔다. 다른 세명의 도리깨꾼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현노솔은 높을 속에 뛰어들어 도리깨를 휘두르는 첫 타격으로 한놈을 때려잡았다. 그런데 다시 후려치려는 순간 《지근!》 하면서 무엇에 부딪혔는지 도리깨아들이 꺾어졌다. 그는 급히 허리에 찼던 환도

를 꺼내잡고 돌진하였다. 필도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후려치기로 자신있게 두놈을 죽였다. 아주 죽었다는 것이 아니면 언어맛고도 목숨은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놈이 도리깨를 맞고 쓰러졌다. 세번째 왜놈이 그의 도리깨앞에 번개같이 방패를 내었다. 필도가 경험에 있었더라면 이런 경우 즉시 놈의 정강이를 찌를 것이었다. 그러나 필도는 급한 나머지 정황판단을 조그마한 여유도 가지지 못한채 무작정 거들 정면타격만 가하였다. 방패를 찌는 장부끝의 구멍이 빠져 지면서 도리깨아들이 어디론가 날아갔다. 그가 사태를 미처 수습할 사이도 없이 왜놈이 먼저 날세게 반격을 가하였다. 그는 크게 부상을 당하고 쓰러졌다. 뒤따르던 세명의 의병들은 한두놈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채 도리깨를 마사뜨렸다. 구멍이 빠지거나 장부가 꺾어지고 도리깨아들이 부러져나갔던 것이다. 실 패였다.

교훈은 심각했다. 그 정도의 도리깨로는 적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상을 물린 노솔이는 부엌으로 내려와 안해가 방금 걸어다놓은 질퍽이 찬물을 한바가지 툇 떠서 꿀꺽꿀꺽 마시버렸다. 그 모양을 근심스럽게 바라보며 안해가 말했다.

《어보, 속이 막 타는가보군요, 어찌편...》

《...》

《점심전에 필도아저씨한테 갔었어. 그런데 일어나



않지도 못하는 그 아저씨가 막 주먹을 내뿜으면서 내 이 네 낫기만 하면 도리깨 다시 고쳐서 거이고 두세곱 복수를 하고야말래다고 하며 욕 버리지 않았어요, 글썽.》

《!》

안해의 말은 비록 조용하였으나 노솔이가 받은 충격은 컸다.

필도는 중상을 당하고도 기백이 필멸한테 너 노솔이

는 신수가 멀끔해가지고도 어깨가 처져있어 하고 필도가 꾸짖는것만 같았다.

안해에게 아부된 대꾸도 안했으니 노솔이는 부엌문밖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실새가 천부 내탕이라 하더라도, 친구의 부상이 내탕이라 하더라도 그가 꺾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대도 나는 나라

게 전하는 그대의 마음씨 얼마나 가락하오. 아버님뜻과 같은 그대의 마음을 한사라도 잊는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안해도 남편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품다란 눈에 미소를 그리었다.

교훈은 현노솔이로 하여금 병장기를 완성함에 있어서 도리깨의 약한 고리가 어딘가를 뚜렷이 가르쳐주었다. 이로부터 그의 머리속에는 도리깨를 전면적으로 개조할 선이 섰다. 다음날 아침 노솔이가 식구들앞에서 그대하여 설명하자 현로인은 다 듣고나서 신중하게 권고하였다.

《너의 생각이 옳기는 하 다만 보다 더 좋기는 우리 한길 울라리안에서보다 도리깨꾼들을 필도의 집으로 데리고가서 의논하는게 더 좋을 것같구나. 왜놈들한테 부상을 당한 필도인자라 누구보다도 복수심이 강할테고 그래서 자기가 상한 까닭을 두고 깊이 생각했어리만큼 필 좋은 의견을 내놓을게다. 다른 도리깨꾼들도 경험자들만큼 그들의 말도 값이 있을게고.》

《아버님의 가르치심대로 하겠습니까.》

노솔이는 필도에게 자기가 왜 왔는가를 이야기하고나서 《필도, 자네 생각엔 어떤가?》 하고 물었다. 이때 현로인이 늙은이를 뜻과 함께 노솔이와 필도의 상지를 물어만지며 따듯이 병문안을 하였다.

인족로리

석박김치

고 버무린 다음 절인 배추, 사랑가루, 소금, 파토막, 다진 마늘과 생강을 두고 무친다.

2시간정도 지나서 국물을 해붓고 익혀서 낸다.

본사기자

본사의 피루를 출자면

피로가 오면 눈이 아프며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

이때에는 눈을 가변게 감고 눈언저리를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cm간격으로 가변게 누른다.

그다음 아랫목에 엎드려 지손가락을 대고 나머지 네손가락으로 귀앞으로 부터 귀우를 거쳐 귀뒤를 돌면서 5~6번 반복하여 비벼준다.

그리고 눈을 감은 다음 정명혈로부터 속눈썹을 따라 밖으로 가변게 누르면서 나간다.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가 깨끗이 가셔진다.

이밖에 어깨와 목부분을 자극하는것도 피로를 풀게 한다.

목뒤에 있는 천주혈과 풍지혈 그리고 어깨우에 있는 견정혈을 중심으로 그 둘레를 눌러주거나 잘 비벼준다. 견정혈을 누를 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지어놓은 밥도 먹으려다 그것 다르고 집수려는것 다르다.

《먹으라.》는 말과 《잡수라.》는 말이 다르듯이 같은 것을 대접해도 레질을 지켜공손하게 대하는것과 그렇지 못한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옴을 비겨 이르는 말.

◆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